

# 올해 남해안 멸치·전어 잘 잡힌다

## 어획 밀도 작년보다 237%·154% 증가

올해 남해안에서 멸치와 전어가 많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 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 12일부터 열흘간 남해 연근해 15개 해구를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한 결과 멸치와 전어 어획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남해안의 전체 평균 어획 밀도는 1km당 6.75t으로 전년보다 185% 늘었다. 많이 잡힌 어종은 멸치, 전어, 보구치, 참돔, 달고기 등으로 얼푼이, 멸치, 덕대, 청멸, 달고기 등이 많이 잡혔던 지난해보다 고급 어종이 많이

어획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멸치가 1km당 2.7t으로 전년보다 237% 증가했다. 전어도 2.3t으로 154%나 높은 어획 밀도를 나타냈다. 전어는 거문도를 비롯한 남해 서부해역에서 어획밀도가 높았다. 민어와 어류인 보구치(일명 백조기)는 남해 동부해역에서 많이 어획됐다. 남서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남해안의 수산자원 상태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이달의 웰빙 수산물 병어·키조개

“깨끗한 전남 바다에서 자란 제철 수산물로 행복한 봄 맞으세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원장 임여호)은 5월의 제철 참살이(엘빙) 수산물로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병어와 키조개를 선정, 발표했다. 병어는 5~7월 산란기를 앞두고 있어 가장 맛있는 제철이다. 살이 부드러워 지방이 적어 담백하며 단백질이 풍부해 어린이, 노약자 건강 관리에 좋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또 곡식의 쪽죽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키(챙이)’와 닮았다고 해 이를 붙여진 키조개는 키조개에는 아연을 비롯한 미네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 촉진과 성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을 준다. 임여호 원장은 “나들이철 5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건강 관리에 병어와 키조개가 좋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순천교육청·순천대 박물관

### 역사체험 활성화 교류협정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문재)과 순천대학교 박물관(관장 강성호)은 최근 역사체험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사상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부합하는 ‘어린이 박물관학교’라는 역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리고장을 바로알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박물관학교’는 관내 유·초·중등학교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시되는 대규모 역사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 박문재 교육장은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와 우리가 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 주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바쁘지만 즐겁네요” 윤달을 맞아 보성읍 보성읍 봉신리 보성 전통명품삼베(대표 박영남)가 밀려드는 수의(壽衣) 주문으로 분주하다. 보성삼베는 조선시대부터 ‘보성포’라 불릴 만큼 명성 있는 지역의 토산품으로, 지난해 지리적 표시 제45호로 등록됐다. <보성군 제공>

# 여수산단에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 행안부 환경개선 공모 선정...연말까지 6억 투입

전남도가 추진하는 여수 산단지역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설치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12년 외국인 집중 거주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행안부는 전국 100여개 집중 거주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11개 거주지를 최종 선정후 거주지별로 6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을 지원하

기로 했다. 여수시의 외국인 수는 총 3500여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80위권 정안전부의 ‘2012년 외국인 집중 거주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행안부는 전국 100여개 집중 거주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11개 거주지를 최종 선정후 거주지별로 6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을 지원하

다문화도서관, 취미교실, 통·번역센터 등이 포함된 외국인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승욱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연이은 환경개선 사업 실시로 도내 외국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의 관심이 쏠리는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에 외국인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가 설치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 ‘광양 월드 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준비 순조

‘광양 월드 아트서커스 페스티벌’ 공연장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태리에서 선정된 1615석 규모의 대형 텐트인 ‘빅탑’ 2동을 실은 컨테이너가 최근 행사장에 도착, 본격적인 설치작업에 돌입했다. ‘빅탑’ 설치작업은 호주 공연장 설치 전문팀이 현장을 점검하고 토질

과 구조물의 안정성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협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아트서커스 공연장 진행률은 92% 수준이다. ‘빅탑’은 메인텐트 2동과 포이어 텐트 2동으로 구성됐다. 메인텐트는 1동당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50m, 높이가 19m에 이르는 대형 텐트이며, 포이어 텐트는 1동당 가로·세로 길이

가 각각 26m, 높이가 9.5m에 이른다. 이태리에서 새로 제조된 신형 임대 텐트인 ‘빅탑’은 내화성이나 약천후에도 강한 특수 재질로 제작됐다. 한편 광양시는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광양항 국제 여객터미널 뒤편에서 세계 6개국 정상급 팀들의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광양 월드 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pyj4079@

## 고흥군·녹도진 상충사 모충회 ‘쌍충제전’



고흥군과 (사)녹도진 상충사 모충회는 지난 30일 도양읍 봉암리에 위치한 상충사에서 박병중 군수와 신태균 의장, 해군 제36 전대장, 기관단체장, 군민, 학생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충제전’을 열었다. ‘쌍충제전’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 좌수영의 선봉이었던 녹도만호 충렬공 이대원(1566~1587) 장군과 충장공 정은(1543~1592) 장군을 추모하는 행사다. /동부취재본부=추기중기자 gju@

# 전 북

## 순창 금과전원마을 분양 100% 완료

순창군과 한국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종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과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 분양이 지난 25일 100% 완료됐다. 30일 순창군에 따르면 토지분양(분양가 22만원)은 단독주택 48필지, 타운하우스 27필지 등 총 75필지가 완료됐다. 분양신청자는 광주 30명, 전북도 36명, 서울·경기지역 5명, 기타 4명이다. 이 같은 분양 상황은 지난 2009년 사업신청 당시 총 16가구 분양신청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변화는 최근 베이비 부머 세

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한 귀촌 현상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순창군의 의지 및 장수브랜드 가치의 위상,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한국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7월 안에는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순창군 금과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과면 내동리 산 74번지 일원 8만 578㎡에 75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국제 패트롤잼버리 새만금에서”

## 전북도 “1000만㎡ 부지 제공 유일” 유치 총력전

### 유치위 구성... 6월30일 한국대회 후보지 결정

전북도가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 인 청소년 야영대회인 잼버리(Jamboree)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전북도는 “2014 한국잼버리 국제 패트롤 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해 신청서를 낸 뒤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도는 지난 27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치프 커미셔너(Chief Commissioner)를 초청, 유치배경 등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김완주 지사는 치프 커미셔너와의 간담회에서 “세계 잼버리에 필요한

1000만㎡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친환경 녹색개발의 중심지 새만금지역이 잼버리의 추구 이념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전북유치에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농업용지 3공구 지점인 1157만㎡(350만평)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회 개최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환경 파괴 논쟁이 아예 생기지 않아 원활한 대회를 개최하는데 최적지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새만금을 ‘명품 수변도시’와 ‘탄소 프리(Free) 도시’ 등 친환경 녹

색개발을 하는 새만금 지역이 잼버리가 추구하는 친환경·평화 이념과도 일치하는 곳을 부각시키고 있다. 2014 한국잼버리는 50개국 2만여명, 2023 세계잼버리는 161개국 5만여명이 참가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국제 야영대회다. 국가 원수급만 20명 정도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잼버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마련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유치한다는 전락이다. 한편, 한국잼버리 개최 후보지 결정은 6월 30일에, 2023 세계잼버리 개최 후보지는 2014년 슬로베니아 세계 스카우트연맹에서 결정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한스타일진흥원’ → ‘한국전통문화전당’ 개명

전주시에 건립되는 ‘한스타일 진흥원’ 명칭이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변경된다. 전주시는 명칭제정위원회를 열고 공모를 통해 ‘한국전통문화전당’을 한스타일진흥원의 새 이름으로 선정했다. 옛 전북도 2청사 부지에 건립 중인 ‘한스타일진흥원’의 명칭 변

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9년 12월 착공한 ‘한국전통 문화전당’은 부지 1만 9800㎡, 연건평 1만7140㎡ 규모로 건물 외관은 6월께 준공하고 전시관 등은 하반기에 추진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라선 KTX 모든 열차 오늘부터 남원역 정차

1일부터 전라선 KTX가 남원역에 왕복 5회 모두 정차한다.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지난해 10월 전라선 KTX 개통후 왕복 5회중 3회만 남원역에 정차토록 변경했으나 남원시를 중심으로 사회지도층과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요구에 따라 남원역 KTX의 모든 열차의 정차를 결정했다. 1일부터 변경되는 KTX 남원역 정차시간은 ▲상행 6시14분·10시52분·

13시46분·16시27분·19시59분 ▲하행 8시12분·10시40분·13시06분·15시11분·22시17분이다. 남원에서 응산까지 2시간 35분이 소요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KTX가 남원역에 추가 정차함에 따라 남원시가 선진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9월 맛좋은 쌀 부탁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순창군 북흥면 담동리에서 모내기가 시작됐다. 모내기 품종은 ‘동진 1호’와 ‘추광’으로 오는 9월 중순께 수확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 단신

### 전북도, 구제역·AI 특별방역 5월말까지 연장

전북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 방역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대만, 홍콩, 중국, 베트남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 방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 방역 기간에는 방역체계

와 비상연락체계 유지, 이동방역 기구 점검·운영, 야생철새나 가금류 모니터링 검사 등 상시방역 체계를 갖추게 된다. 방역기간 농장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주기적인 소독·방역일지 기록을 생활화해야 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1930년 시간여행’ 연극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 2차례에 걸쳐 일제의 수탈과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1930년 시간여행’이라는 제목의 연극은 전국 박물관 최초로 전시장을 무대로 활용한 시대극 공연이다.

연극은 박물관 자원봉사자 15명이 참여해 ▲소설 ‘탁류’의 미두장 알 정주사 장편 ▲소설 ‘아리랑’의 부뚜개 노동자의 삶과 쌀 수탈 장면 ▲군산 영명학교와 3·1운동 등 군산의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스토리화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정읍 ‘쌈고을 시장’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정읍지역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쌈고을 시장’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읍시는 “중소기업청에서 특성화시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통합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서 ‘쌈고을 시장’이 선정됐

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1억33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1700만원을 들여 사업 추진에 나선다. 통합안전 관리시스템은 U-IT기술을 접목해 방범 시스템과 방재 시스템, 다목적 방송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김제 ‘농산물 유통시설 채소공판장’ 준공

김제시 ‘농산물 유통시설 채소공판장’이 30일 준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채소공판장은 김제시와 김제원에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진태)이 부지 1만1870㎡에 연면적 9만9787㎡ 규모로 총사업비 10

억원(시비 4억원·자부담 6억원)을 투자해 건립했다. 이간식 시장은 “채소공판장은 김제지역의 농산물집하 유통기능 확대와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